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K-자원봉사 추진방향 모색

호남권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워크숍 개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권역별 훈련 등 논의

광주자원봉사센터(센터장 류미수)는 29일 광주여대 국제회의장에서 ‘호남권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25개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12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유엔이 선포한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IVY 2026)’를 맞아 K-자원봉사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호남권 자원봉사센터의 실천과제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워크숍은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

는 자원봉사의 전환 방향’을 주제로 한 윤희철(전)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의 특강에 이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변화와 현장의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한 분임토의로 진행됐다.

특히 돌봄·안전·환경·재난 대응 등 지역 현안과 연결된 자원봉사 실천전략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으며, 호남권 자원봉사센터의 연대협력 방안으로 지역과 지역을 잇는 불린투어 활성화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권역별 모의훈련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행사에 앞서 참가자들은 ‘세상을 잇는 자원봉사, 자원봉사로 잇는 광주·전남’을 주제로 파포먼스를 진행했다. 류미수 센터장은 “요즘 광주·전남 통합논의가 최대 화두인데 호남권의 센터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 상생의 협력모델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동력인 자원봉사의 가치 확장과 시민 모두가 일상 속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참여문화를 만드는 데 함께 지혜를 모아가자”고 말했다.

한편, 광주자원봉사센터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에 대응한 정책연구와 병행해 호남권 센터 간 상호협력력을 통한 공동의 문제해결형 자원봉사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자원봉사센터는 29일 광주여대 국제회의장에서 ‘호남권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광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 청사 신관 구내식당 점검

개소 상황·운영계획 등 청취

광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개관을 앞둔 북구청 신관 구내식당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관 1층에 새롭게 들어서는 구내식당은 한 번에 최대 132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급식을 위해 기존 외부 위탁 방식에서 직영 체제로 전환했다.

현재 영양사, 조리원 등 인력 채용을 마쳤으며, 주방 집기 등 필요 물품 구매와 집단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설 명절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들은 구내식당을 운영계획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하며 향후 쾌적한 운영을 위한 철저한 개소 준비를 당부했다.



광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개관을 앞둔 북구청 신관 구내식당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 심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직원 복지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건협 광주전남지부, 완도·영광군에 사회공헌 후원금 전달

복지·건강 관련 사업 활용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28일 완도군과 영광군을 찾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과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후원금은 각 군청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방 중심 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 및 건강 관련 사업에 활용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협 광주전남지부는 취약계층을 펼치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28일 완도군을 찾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후원금을 전달했다.

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구례군은 최근 구례우체국과 ‘다문화가족 국제우편(EMS) 요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례군-우체국, 다문화가족 국제우편요금 지원 ‘맞손’

50가구에 사업비 500만원 투입

구례군은 최근 구례우체국과 ‘다문화가족 국제우편(EMS) 요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고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 내 지자체 중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한 군은 사업비 500만원을 투입해 50가구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가구는 횡수에 상관없이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국제우편(EM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군은 다문화가족 고국 방문 지원, 자조 모임 지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 등 10여개의 특성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다문화가족들이 고향에 계신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lkjin@gwangnam.co.kr

장성군산림조합,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1000만원 기탁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용

장성군산림조합은 최근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장성군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기능보강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실제경 장성군산림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조직으로서 어르신 돌봄과 취약계층 지원 현장을 찾아 지속적인 사랑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산림조합은 매년 취약계층에 대한 사랑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장성=이형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장성군산림조합은 최근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장성군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기능보강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게시판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여, 심리상담, 생애 설계, 노래, 댄스, 명상보통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 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돌래너지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운세 (음력 12월 12일)

쥐 48년생 금전관계로 지인과 다를 수 있다. 60년생 거레에 기뢰가 오고 재물도 생긴다. 72년생 가능하므로 기대해도 된다. 84년생 갖추고 있어야 기회를 수용하게 될 것. 96년생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안 보인다.

토끼 51년생 부동산 일 보안과 준비에 만전 기하라. 63년생 어떻게 하나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 75년생 서두르면 틀어지니 차분히 진행하라. 87년생 배우자 외의 이성은 반드시 후회한다. 99년생 뚝은 고달프고 스트레스 쌓이는 날.

말 54년생 아랫사람이 뒤에서 모략하니 행동 조심. 66년생 바빠 서두르면 하어진 손해 본다. 78년생 추이를 더 지켜봐야겠다. 90년생 이익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돼지 57년생 다소 혼란스럽지만 자리를 잡아갈 것. 69년생 친구·동료의 도움을 적극적 수용하라. 81년생 서로 들어맞지 않아 애를 먹는 날. 93년생 연인으로 인해 동상에 빠지는 날.

소 49년생 명예에 안세우면 낭패를 볼 수 있다. 61년생 혁신적 발상의 전환이 선행돼야 할 것. 73년생 모난 그릇에 둥근 뚜껑 덮으려는 날. 85년생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니 기막다. 97년생 선배에게 사기 당할 우려가 있다.

황소 52년생 헛소문에 기빠랄 수 있으니 신중하라. 64년생 필연적이라면 적대 금물. 76년생 일반적인 방법이 가장 무난하다. 88년생 이성의 유혹을 뿌리쳐라.

양 55년생 생각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67년생 사악한 마음은 절대 금물. 79년생 투기에 손 떼고 안전성 있는 일에 투자. 91년생 되는 일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개 58년생 갈등이 생기니 지금 있는 자리를 지켜라. 70년생 자녀로 인해 부부 갈등 오는 날. 82년생 중간 역할 잘 해야 거레저 원망 안들는다. 94년생 뒷사람과 상의해 다음 기회를 기억하라.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작명

호랑이 50년생 움직인 보다는 기만하 있는 것이 낫다. 62년생 복잡한 일로 갈피를 못 잡을 수도 있다. 74년생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86년생 넘치는 금전 바라면 얻은 것도 놓친다. 98년생 매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범 53년생 앞일까지 다보내고 결정하라. 65년생 경쟁자가 생기니 귀하가 승리한다. 77년생 부동산에 투자 생각 있으면 착수하라. 89년생 마음을 편히 갖고 안정을 취함이 좋다.

원숭이 56년생 적자가 아닌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라. 68년생 현상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80년생 거레에 다들 일이 생겨도 참는 게 상책. 92년생 심심하지는 않았다.

돼지 59년생 잘해주고 예뻐한 일이 생기는 날. 71년생 현상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83년생 좀 더 나은 조건으로 변경될 것. 95년생 앞만 설계로 내일을 기억하는 날.